#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10강, 클로에의 집에서 온 구전 소식에 대한 바울의 응답, 1부, 고린도전서 1:10-4:21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10강, 클로에의 집에서 온 구전 성명에 대한 바울의 응답--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입니다.

글쎄요, 고린도전서를 생각해 보는 10번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7번 노트패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 노트패드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사실 4장까지, 장의 마지막까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를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 특정 단원을 생각해 보는 것은 1, 10에서 4장 끝까지와 같은 전체 단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단락이나 구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종종 설명적 설교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언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를 바라지만, 예를 들어 설교자가 성경의 한 책을 설교하면서 설명적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글쎄요, 설명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한 번에 한 구절씩 설교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설교자의 작품인 로마서를 설교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그들은 이 구절을 설교하고, 이 구절을 설교하고, 저 구절을 설교합니다.

죄송하지만, 로마서를 통한 설교는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 단원, 이 단원, 이 단원을 설교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단원들이 여러 구절을 차지할 수도

있고, 때로는 10절이나 20절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큰 사상을 전달합니다. 1901년 미국 표준판 성경처럼, 이런 큰 단락이 있는 것처럼요.

문단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결코 문단을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문학 장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클로에의 집에서 정보를 얻었고, 바울이 그것에 응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 단원은 1:10에서 시작하여 4장 끝까지 이어지며, 이 구절의 다양한 범주나 다양한 구절을 훑어보면서 작은 구절 등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1장부터 4장까지를 하나의 단원으로 생각하고, 그 단원의 각 부분이 전체 단원에 기여하고 관련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싶은 방식입니다. 이제 숙제를 하거나 독서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방법은 Talbert의 책인 Reading Corinthians를 읽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한정판입니다.

그것은 주로 당신이 다루고 있는 텍스트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항상 그것에 대한 한 가지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Talbert는 개별 구절뿐만 아니라 구절이 단위 내에서 어떻게 의미하는지 단위를 살펴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살펴보는 1~4장에서는 브루스 윈터의 책,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이 두 사람으로 이 장에 대한 분석을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몇 가지를 더 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에 들어갔고, 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숲을 보지만 나무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숲에서 일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방대한 자료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 섹션의 문단과 구절을 살펴보기 위해, 저는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많은 구절과 구절에 대해 언급할 것이지만, 그 맥락 내에서 개별 구절 이상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보세요, 이 단위라는 개념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선, 저는 53쪽 하단에 있는 Talbert의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는 1장 13절에 세 개의 수사적 질문이 있다고 올바르게 지적했고, 여기 있습니다.

1:13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문단의 내부 내용입니다. 문단은 10절에서 시작해서 적어도 17절까지 이어지지만, 문단 내부에서 그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Talbert는 이 세 가지 수사적 질문의 관점에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53페이지 하단에 제시한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답변이 역순으로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지만 1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게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그런 다음 1장 14절에서 16절 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를 받았는가? 그런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리고 물론 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117에서 34절에 나옵니다. 탤버트에 따르면 바울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런 다음 그는 그 답을 풀어냅니다.

그런 다음 3장 5절에서 4장 7절의 마지막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나뉘었는가?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질문,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답이 3, 2, 1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아즘이라고 합니다. 탤버트를 읽으면 그가 카이아즘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카이아즘은 A, B, C, 그리고 C, B, A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 3, 3, 2, 1, 그 관점에서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결론에 4, 8, 21을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편리하지만, 정확히 마지막 단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장에서 4장까지 전체를 살펴보면, 2장, 6장부터 2장 끝까지가 바로 그 중심에 있고, 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Talbert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느낌을 주고, 적어도 그의 관점에서는 확실히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Wynter의 분석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브루스 윈터는 그리스-로마 자료에 대한 전문가이고, 그는 신약 학자입니다. 그는 들어와서 이것을 단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단원의 핵심이 3장 3절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훨씬 지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전체 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3.3절에서, 사실, 문장의 바로 중간에, 그 문장은 2절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으로 먹이노라.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1장과 2장에서 말한 것을 다시 분석하고, 이 전체 단원의 핵심이 지금 나옵니다. 너희는 준비가 되지 않았노라, 3절,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 너희 가운데 질투와 다툼이 있는 한, 앞서 말한 진술의 모든 분열이 있노라. 너희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며 인간의 성향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느냐는 것이 RSV에서 번역한 방식입니다.

NIV를 들어봅시다. 이것은 여러분의 버전을 정리하기에 좋은 구절입니다. RSV의 3장 3절은 이렇게 읽힙니다: 저는 변명합니다. NIV에서는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그는 앞 단원에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투와 다툼이 있으니 세상적이지 아니한가요? 여러분은 그저 인간처럼 행동하지 아니한가요? 그래서 3절의 이 어법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윈터는 1장에서 4장까지의 전체 단원을 세상적이라는 것,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 유리한 관점에서 되돌아와 평가하는 수단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문화적 맥락의 특징은 이 구절에서 매우 많이 반영되지만 전체 단원의 내용에도 반영됩니다. 54쪽, 두 번째 문단에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이 문화적 맥락을 지배하는 것으로 언급된 주제 구절은 실제로 3.3입니다. 마지막 핵심 구절의 몇 가지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여러분은 행동하고, 사람에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어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 ASV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걷지 않습니까? 그들이 약간의 어법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이 카타 앤트로폰 , 즉 사람에 따라 . 당신은 남자의 기준으로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남자는 섹스 측면에서 남자가 아니라 인류입니다.

인간이 다룰 더 큰 범주는 남자, 여자, 창조된 존재의 9야드 전체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걷지 않습니까? 그것은 ASV입니다. 2011년 NIV는 당신이 단순한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Fitzmeyer가 있습니다. 당신은 세속적인 인간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제 Fitzmeyer가 텍스트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매우 공식적이며 인간과 함께 세속적인 단어를 가져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

당신은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윈터가 들어와서, 피, 당신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열에 대한 이 정보를 볼 때, 이 영웅 숭배를 볼 때, 나는 베드로이고, 나는 바울이고, 나는 아폴로이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누군가가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정보를 읽고 있고, 십자가의 메시지는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글쎄, 답은 3번에 있다. 그들은 기독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풀어내는 세속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를 그들의 방식으로 쏟아붓고 있지, 기독교 방식으로 쏟아붓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메시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Winter와 Talbert, 그리고 다른 곳에서 지중해 교사들에 대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Paul은 지중해 세계의 일부였습니다. 지중해 교사로서, 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학생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자신들이 좋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복음을 쏟아부으려고 노력했고, 바울의 가르침이 자신들을 재구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작업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인들은 자신들이 복음적 사고방식으로 변형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복음을 자신들이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변형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흉악한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쟁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을 거의 숭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처음 네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것입니다.

54페이지의 Winter의 분석을 계속해 봅시다. Winter의 이 구절, 세속적 유행, 또는 걷기, 남자에 따른 가르침에 대한 분석. 내가 당신에게 준 텍스트에서 그리스어로 peripateo , tete라는 단어.

걷는다는 것은 남자들에 따르면 은유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걷는다는 단어가 옛 킹 제임스에서 많은 설교를 설정한 것과 비슷합니다 . 하지만 걷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인간적인 방식에 따라 삶의 방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Winter는 계속됩니다.

세속적인 제자도는 1장과 4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경쟁심. 나의 스승, 당신의 스승.

내 메시지, 당신의 메시지. 이 모든 지위 경쟁은 로마의 경쟁심과 고린도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이 새로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 행동에서 세속적인 유행을 채택했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고린도의 세계관을 복음 자료에 적용했고, 그것이 망가졌습니다. 좋아요, 이제 요점을 주목하세요. 제자라는 용어입니다.

이제, 이걸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제자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신약의 어떤 서신에서도 제자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 신약에서 우리는 사도행전과 4복음서에서 제자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가 이 서신들 중 일부가 쓰여진 당시의 시기를 포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적어도 서신에서 행해지던 관행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신에 없는 단어에 대한 분석을 너무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특정한 문화적 관습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단어를 말하지 않고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제자들, 아폴로의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없지만, 그 틀과 문화적 사고방식은 거기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든 더 큰 로마 세계이든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제자는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제자라는 용어는 그 세계에서 꽤 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견습생이나 학생을 가리켰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천막 제작자였을 때 그는 견습생, 즉 그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거래를 한 방식이에요. 당신은 거래를 배웠고, 당신은 거래를 적용했어요.

당신은 학생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견습생이 되었고, 당신은 그들에게 그 무역을 가르쳤습니다.

글쎄요, 대중 연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중 연설은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매우,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왜? 글쎄요,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본을 배포할 특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구전으로 이루어졌고, 구전의 힘을 갖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코린트와 같은 로마 도시에서 그들은 이 구전의 힘이라는 관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전 연설자들이 있었고, 이 연설자들의 제자나 견습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을 존경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종의 문화적 혼합의 일부이며 1장에서 4장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은 바울이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이고, 심지어 그리스도도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1세기에 유명한 선생님, 유명한 연설가의 학생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의 일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복음서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견습생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다시피, 제자라는 개념은 특히 복음서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나오는 일부에서, 서신서로 넘어가면서 바뀌었습니다.

은유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밑바탕에 있고, 동사는 두 번 정도 사용되어 가르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지는 형제로 바뀌었고, 서신에서는 가족이나 효도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언급됩니다.

그것이 문화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이 말해지는 방식을 구두로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 예수의 제자, 다양한 철학자의 제자, 그리고 당시의 다양한 교사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견습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를 따르기를 그만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서 연구에는 제자라는 개념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는 구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견습생과 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증거는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하지 않기로 선택한 견습생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용어라기보다는 추종자의 용어였습니다. 추종자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훨씬 더 많은 맥락을 다루어야 합니다. 매우 조심하세요.

제자도에 대한 복음서와 관련하여 많은 잘못된 이해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권 구원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영역 중 하나에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입니다.

제자의 역할은 스승의 직업에 대해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업은 천막 만들기일 수도 있고, 법원과 같은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발견되는 은세공과 같은 무역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에 무역은 길드였고, 길드는 그들만의 커뮤니티 센터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길드에서 그들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트럭을 운전한다면 Teamsters의 일원이 되고, 뉴욕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한다면 노조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노동조합 등의 의미와 용법과 관련하여 여러 시기에 걸쳐 쇠퇴했지만, 그것은 길드였고, 어떤 환경에서는 여전히 길드입니다. 글쎄요, 그들은 1세기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길드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미국의 우리 문화에는 다른 종류의 길드가 있습니다.

미국 군인회가 있고, 군사 조합이 있고, 무스가 있고, 메이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의미를 찾는 이런 종류의 클럽이 있습니다. 주어진 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글쎄요, 1세기에는 이런 길드의 대부분이 무역을 중심으로 했고, 로마 세계에서는 연설가와 대중 연설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역할은 스승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술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웅변술과 같은 기술에서 제자는 모방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을 따른다는 개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는 방식, 행동적 특징, 심지어 외모까지 포함하여 주인을 본받으세요.

1세기에는 어떤 웅변가의 제자가 되는 것의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역사 문헌을 살펴봐야 하지만, 세 번째 요점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inter는 Sophists로 알려진 것의 르네상스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1세기의 교사 그룹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것에 대한 책을 썼는데 , Bruce Winter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제목 중 하나입니다.

제2 소피스트 거리라고 불립니다. 1세기였습니다. 이 소피스트 문헌에서 제자라는 용어는 181회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1세기의 그 특정 길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매너리즘의 대부분 뒤에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의 제자 패러다임은 당시의 연설가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연설가들은 다양한 공공 장소에서 다양한 견해와 사례를 주장했습니다. 시장인 아고라에서든, 일종의 대중 연설 장소이든, 민사 법원이든, 로마법 내의 다른 수준의 법원이든 말입니다.

1세기에는 연설가가 주요 직업이었습니다. 훌륭한 연설가가 되세요. 다른 사람들을 특정 위치로 설득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권력을 가져다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존엄성이라는 감각을 가져다줍니다. 그것은 지위 개념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코린토스 문화에 매우 중요하고 내재적입니다. 게다가 54 페이지의 마지막 글머리에, 로마 코린토스에는 연설가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중 일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여전히 Winter 의 기사를 여기서 작업하고 있고, 그것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연설가의 특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사들 사이에는 강렬한 직업적 경쟁심이 있었고, 그것은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나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나는 아폴로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 경쟁심이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그 한 선생님에게 집중하고, 아마도 그 한 선생님처럼 행동하고, 아마도 그 특정 선생님의 수사법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저는 플로리다에 있고, 기억하세요, 지금은 우기예요 . 그러니 필리핀이나 다른 곳에 있다면, 그곳에서 벌어지는 웅성거림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제자의 역할은 스승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웅변술에서 그들을 모방하세요. 천막 제작자를 모방하는 것은 그들이 바느질하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은 한 가지이지만, 웅변가를 모방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죠, 오, 그들은 누구의 학생인가. 그가 말하는 방식을 들어보세요. 그의 주장을 들어보세요.

우리 문화권과 크게 다르지 않죠? 어떤 유명인의 제자가 되면 종종 그들의 특성을 좋든 나쁘든 따라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경쟁, 이 직업적 경쟁은 종종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틴어로 dignitas 라고 불렀습니다 .

도시 시스템에서 명예를 얻으세요. 브루스 윈터의 책 중 하나는 Seek the Welfare of the City입니다. 도시는 로마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도시의 부유한 사람들은 도시 전체를 홍보해야 했고, 이는 그들이 도시에 좋은 일을 해야 했으며, 여기에는 도시의 모든 시민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물에 대한 공산주의적 접근 방식이 아니었지만, 존엄성이 낮거나 지위가 낮거나 수단이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돌보아지도록 하는 도시에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원한다면, 사회 보장 도시, 사회 보장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시는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스템에 있었다면, 당신은 보살핌을 받았고, 그것은 그 문화 안에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중 연설자가 되는 것이었고, 명예를 얻는 것은 도시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당신이 웅변적 배경을 잃으면, 당신은 존엄성을 잃을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의 특권과 도시에서의 당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지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주님의 만찬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와 같이, 또는 5장과 6장의 법정 시스템에서, 또는 인간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와 같이,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3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꽤 싫어하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노래 중 하나다. 나는 내 방식대로 했다.

글쎄요, 그게 고린도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했어요. 그들의 방식은 로마 방식이었고, 복음 방식이 아니었어요.

54페이지 하단의 다음 글머리 기호, 코린트는 악명 높게 소송을 일삼는 사회였습니다.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도시에서 어떤 종류의 명예를 얻기 위한 모든 일은 종종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은 우리 법정과 달랐고, 미국 법정이나 영국 법정과 전혀 달랐습니다.

당신이 온 세상의 모든 법원에 대해 나는 모른다. 이 법원들은 웅변가가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소위 배심원단은

종종 매수되어 설립되어 웅변가가 대표하는 사람을 위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지위를 얻었다.

그 연설가가 졌다면, 그 사람은 지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대중 연설과 청중을 설득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린트는 악명 높게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 도시와 로마 자체는 악명 높게 소송이 많았습니다 . 대중 연설은 그런 문화에서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들은 로마법의 전제를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성공과 명성은 설득력과 웅변술을 사용하여 판사와 배심원을 설득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웅변 구조와 문화의 일부였던 경쟁은 로마가 실제로 로마 도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역사에 개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시기였습니다. 55페이지, 맨 위 항목에서 제자들은 스승에게만 충성해야 했습니다. 이제 1~4장의 앞부분을 다시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읽기 전에 이미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바울 편입니다. 나는 아폴로 편입니다. 나는 베드로 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제자들은 자신이 붙어 있는 선생님에게만 전적으로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런 경쟁심 , 그런 분열, 그들은 세속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세속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세속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같다는 것은 당신의 환경과 같다는 뜻입니다 . 여기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설교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제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 된 후, 저는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용합니다.

두 가지 주요한 다른 세계관. 미국의 세속적 세계관은 사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세계관 차이. 제자들은 스승들의 세계관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성격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개성은 크고 웅변적이었어요, 알다시피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집착했어요. 그게 바로 분열이었어요.

그것이 이러한 분열의 밑바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유추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에서의 제 문화가 아닙니다.

네, 몇 가지 비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로마 문화였고 모든 것이 연설가의 힘에 달려 있었습니다. 열광자라는 용어는 그들 중 일부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열광자는 교사와 그의 견해에 맹렬히 충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맙소사, 1장부터 4장까지, 바로 핵심까지요. 브루스 윈터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1장 3 장 3장 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 장, 아니면 실례합니다, 55페이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았다고 비난했을 때, 그들은 실제로 그들 자신의 문화에서 배운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마도 도시의 존엄성을 달성하는 데 깊이 뿌리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살펴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단이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는 세상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한다면 잃을 것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에서 이런 위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친 윤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권력, 부, 영향력을 훼손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들은 그 전환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는 기독교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적어도 다섯 가지 방법으로 역전합니다. Winter에 따르면, 42~43페이지,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첫째, 바울, 아폴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과는 반대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에서 하나입니다, 3장, 21~23절.

이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연설가에 대한 충성심 등의 패러다임에 관해 구성해 온 것에 비추어 이 구절들을 들어보세요. 저는 개정 표준 새번역본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 지도자들을 자랑하지 말라.

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보세요, 표면적으로 이 글을 읽고 로마에서 사는 것이 어땠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물론 자신의 문화의 경쟁심에서 몇 가지 비유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1세기 고린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만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이생이든 죽음이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경쟁심을 없애세요. 거짓으로 두었던 충성심으로 분열을 멈추세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헌신해야지, 이 모든 조각들에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신자들의 역할은 지위가 아닌 기능적 업무를 위한 것입니다. 지위가 아닌 기능적 업무. 3, 5에서 7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폴로는 무엇인가? 바울은 무엇인가? 너희를 믿게 한 종들. 사람, 그리고 4장은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계속 설명할 것이다. 종들.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원하는 만큼 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수진의 일원이었고, 행정부는 마케팅에 대한 문구를 내놓기 위해 마케팅 담당자 그룹을 고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항상 나쁜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들을 교수진 회의에 데려와서 훌륭한 성과를 발표하게 했고, 리더와 하인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그들이 한 일은 특정한 순서를 정하고, 리더를 먼저, 하인을 그 다음에 두었고,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수천 달러를 지불했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왔고, 교수진으로서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당신은 리더보다 먼저 하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리더보다 먼저 하인입니다.

그게 기독교적 방식이고, 그들은 그것을 얻었지만, 그들은 그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봉사가 옵니다. 아니,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봉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권력이 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윤리보다는 로마 고린도의 윤리를 따랐고, 그럴 때마다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 신자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하인, 청지기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이 4:1-4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2:1-5에서 바울이 한 말은 로마 문화의 교사-제자 모티브의 권력 행사를 약화시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파워 플레이로 여러분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유일한 위로 가는 길은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코린스는 다른 사람들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반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내 노트를 읽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이해하려면 스스로 숙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읽어달라고 부탁한 것, 즉 5 번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제자라는 이미지를 로마 문화권에서는 효도 가족 이미지로 이해될 것에서 옮깁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괄호를 제대로 넣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제자라는 이미지를 바꿉니다. 그것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세상에 왜 우리는 서신에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글쎄요, 서신은 지배적입니다. 모든 서신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가장 많이 쓴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개별적인 서신을 썼고, 그것들은 로마 세계에 있습니다.

그는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효도, 가족적 이미지를 씁니다. 그것은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 즉 로마 이미지, 견습생이라는 이미지를 가족 이미지로 바꿉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새로운 세계관, 다른 윤리에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구성원들을 무너뜨려서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구성원들을 들어올려서 두드러지게 됩니다. 명사 제자는 바울 문헌에서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매,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 형제라는 용어는 29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는 그들의 웅변적 모범이 되는 의미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유가 바뀌었습니다. 제자라는 명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외에는 신약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흥미롭군요.

복음서에는 학생과 교사라는 그리스-로마적 뉘앙스가 있기는 하지만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로마 세계와 주로 연결되어 있는 서신에 들어가면, 바울은 제자, 견습생의 세속화에 대한 이미지와 전염병처럼 웅변적 영향을 피합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Talbert는 우리에게 그 카이아즘을 제시하여 세 가지 질문에 답합니다. 좋긴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어느 장에서든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의 의미를 알아내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경쟁과 분열과 질투와 다툼이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사상을 세속적인 유행의 방식, 그들이 너무 익숙해진 세속적인 세계관에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물고기가 젖는 것을 느낄까요? 그들은 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주 새로운 것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요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주요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말해봐, 내가 거리에 나가있어. 거리를 걷고 있어. 포르쉐를 봤어, 포르쉐, 뭐라 하든.

포르쉐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금이 매달려 있는 호화롭고 비싼 옷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차량의 뒤쪽 범퍼를 바라보고, 이 매우 과시적인 사람과 범퍼 스티커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세계관입니다. 그것은 매우, 원한다면, 미국적인, 서구적인 문화, 권력, 돈, 세계관입니다.

그들의 인생관은 물건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물건을 얻으세요.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축적하면, 당신은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차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차가 도로에 있고, 당신은 그들을 들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마주치며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와, 저는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이렇게 볼 겁니다. 글쎄요, 당신은 내 범퍼 스티커의 요점을 놓친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보고, 그래, 하지만 당신은 죽을 거야, 그렇지? 저기 문이 있어. 그 문으로 들어가. 알다시피, 우리가 1세기에 바울이 한 것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접촉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교육적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현명한 독서와 사고, 그리고 당신이 어떤 문화에 있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문화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종교적 문화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위에 따라 일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독교 진리를 그 문화에 가져왔고, 그것은 두 가지를 맞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도와 가르침은 바로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들도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감정적인 용어로가 아닌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서양 문화입니다. 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감정적인 진술입니다. 성경에서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사려 깊은 존재의 모든 것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주로 감정적 영역이 아닌 이성적 영역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활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인 스플랑크나(Splankna) .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 문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연민의 활.

그건 감정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스플랑크 나가 아니에요 . 처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의도한 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새롭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런 변화를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 당신은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는 사람이 이기는 것에서 장난감을 세상과 공유하고 그들이 당신과 함께 가도록 돕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윤리의 변화.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용하고,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 물건을 사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미국에 전할 때, 요즘은 이교도 국가인 미국에서, 거의 끝까지 전할 때, 우리는 많은 교회의 존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라는 단어조차 정치에서 강력한 단어로 여겨진다. 하지만 6시 뉴스에 나오는 평범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복음주의라는 단어의 좋은 부분이 무슨 뜻인지 정의조차 할 수 없다. 그들은 단서가 없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앉아서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당신이 얼마나 완전히 무지한지 아십니까?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테네로 들어가는 바울과 같은 느낌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글쎄요, 폴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매우 비슷한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세속적인 방식과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작동하는 세상.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행동을 바꿔서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티프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개념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해 온 것보다 조금 짧은 강의이지만, 이 지점에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보는 이런 종류의 문화적 배경을 머릿속에 채워서 이런 세부 사항을 읽을 때 익숙한 것에 문화화시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배경과 로마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 사이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가능하다면, 읽어보려고 노력하세요. 겨울까지 책을 구해서 그 장들 중 몇 개를 읽어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명명법과 행동적 측면이 20세기의 배경에서가 아니라 1세기의 배경에서 이해되도록 하세요. 원래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배경이 아닙니다.

물론, 전달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이 문제를 진정으로 다루려면 바울과 그의 청중과 함께 했던 방식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다음 세션에서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고린도전서 1:10에서 4장 끝까지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3:3을 계속해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당신은 세속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은 2:6에서 16장에 있고,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과 정말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 노트를 읽어보세요. 핸드아웃 번호 7인 것 같아요. 노트패드 번호 7,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 섹션을 완성하려고 노력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떠드는 머리를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숙제를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10번째 강의, 클로에의 집에서 온 구전 성명에 대한 바울의 응답--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입니다.